

## 지역의 문제 민·관·공·산·학이 함께 해결한다 ‘지역 주도 민관협력체계 사업’ 출범

- 전국 7개 지역 200여 명 한자리에. 지역 주도 문제해결 협력체계 본격 가동
- 지역별 혁신 의제 공유하며 지역사회 혁신 위한 협력·확산 기반 마련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주민과 지역사회가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협력체계가 전국 7개 거점 지역에서 일제히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19일(금) 경북 청도군 청도상상마루에서 「지역 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선정된 지역 지원 조직과 지역별 거버넌스 참여 기관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사업의 장기적 비전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 전국 7개 지역을 거점으로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상생 협력체계 본격 가동

‘지역 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은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주민과 지역사회가 스스로 발굴하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광역 단위의 민·관·공·산·학 협력망을 탄탄하게 구축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부산, 대구, 대전, 강원, 충남, 전남, 경북 등 전국 7개 지역 지원 조직을 선정한 바 있다. 각 지역은 특성에 맞는 의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번 출범식은 “민·관·공·산·학, 지역에서 만나다”를 주제로 열렸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 지역 지원 조직, 공공기관, 기업, 대학, 시민사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지역이 주도하는 문제 해결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전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행사가 열린 청도상상마루는 과거 공용 버스터미널이 2022년 행정안전부 소통 협력 공간 사업을 통해 지역혁신 거점 공간으로 재생한 곳으로, 다양한 주체가 연결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간다는 이번 사업의 취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 >> 레터링 쌓기 퍼포먼스와 라운드테이블 통해 협력 의지 다져

출범식에서는 김종걸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장이 ‘지역문제 해결, 새로운 협력의 시작’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협력의 가치와 실천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 민·관·공·산·학 대표들은 각자의 역할과 협력을 상징하는 블록을 쌓아 ‘지역 주도 민관협력체계’를 완성하는 레터링 쌓기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과 연대의 의지를 다졌다. 또한 2부 행사에서는 전국 7개 지역 지원 조직과 지역별 민·관·공·산·학 거버넌스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실증프로젝트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돌봄 강화, 원도심 회복, 생태환경 보전 등 지역별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중인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지역 간 협력·확산 방안을 모색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중앙지원 조직을 통해 사업 추진 전 과정을 지원하고, 각 지역에서 축적된 협력 모델과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 소멸, 돌봄 공백, 원도심 공동화 등 지역이 직면한 문제는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라며,

“이번 출범식이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의 자원과 역량을 연결하는 계기가 되어,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혁신 생태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책임자	과 장	염성욱 (044-205-3211)
		담당자	사무관	박은경 (044-205-3222)